

꿈분석 해외 연구동향 -해외학술지 중심-

공현민*, 신동열**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교수**

An Overseas Research Trends in Dream Analysis -Focused on Overseas Journals-

Hyun-Min Kong*, Dong-Yeol Shin**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Student*,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Professor**

요약 본 연구는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의 5년간 꿈분석 관련 해외학술지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꿈분석과 관련된 앞으로의 국내 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Google scholar에서 검색한 해외학술지 84편을 선정하여 게재 연도, 주제별 학술지, 주 사용이론, 주요 연구 주제, 연구방법 등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게재된 연구 수가 증가 후 감소하는 추세이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관련 연구가 각 국가에서 활발했다. 둘째, 꿈분석을 통해 무의식을 해석하고 다양한 분야로 접목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셋째, 연구방법의 동향은 질적연구를 이용한 연구가 53편, 양적연구 24편, 혼합연구 5편, 메타분석 2편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와 꿈분석 분야에서의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주제어 프로이트, 융, 꿈분석, 연구동향, 해외학술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search trends of overseas journals related to dream analysis over the five-year period between 2019 and 2023,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future domestic research directions related to dream analysis. For this purpose, 84 overseas journals searched on Google scholar from 2019 to 2023 were selected and analyzed for research trends, including publication year, journal by topic, theory of use, major research topics, and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first, the number of published studies increased from 2019 to 2021 and then decreased, and related studies were active in each country during the COVID-19 period. Second, there was a tendency to interpret the unconscious through dream analysis and apply it to various fields. Third, the trend of research methods was 53 studies using qualitative research, 24 studies using quantitative research, 5 mixed studies, and 2 meta-analyses. Finally, we discuss our findings and suggest further research in the field of dream analysis.

Key Words Freud, Jung, Dream analysis, Research trends, Overseas journals

Received 19 Oct 2023 Revised 25 Oct 2023

Accepted 26 Oct 2023

Corresponding Author: Dong-Yeol Shin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Email: counme3@naver.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국민건강보험공단(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수가 2018년 75만2976명에서 2019년 79만9011명에서 2022년 100만744명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5년간 총 우울증 진료 환자 수는 430만407명이며 2018년에 대비해 32.9%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것은 20대 여성으로 12만1534명으로 2018년 5만7696명에서 2022년 12만1534명으로 110.65%가 증가했다.[1]

보건복지부(2023)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진료 환자 수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906만1874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우울증 환자는 510만6907명, 불안장애 환자 450만9066명에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함께 치료받은 환자도 55만4099명이었다. 특히 2022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환자 수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이었던 2019년 142만5533명에서 175만5466명으로 23.1%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계는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증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교육의 어려움, 취업난, 사회 양극화 등의 스트레스와 불안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1]

꿈분석은 무의식적 과정을 이해하고 그것이 인간의 행동과 심리적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는 정신역동학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관심 분야이다. 꿈은 개인의 생각, 감정 및 근본적인 갈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상징의 원천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정신역동이론에서는 꿈이 무의식적인 소망, 욕망,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표현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꿈을 분석하면 내담자의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통찰력을 촉진하며, 치료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수년 동안 꿈분석은 정신역동 치료와 정신분석의 기본 구성 요소였으며, 상담자들은 다양한 해석 기법을 활용하여 꿈 속에 잠재된 의미를 밝혀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나 현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과 같은 재난, 기타 외상적 사건을 경험하면, 경험한 외상적 특징을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깨어 있는 것에서 꿈을 꾸는 것

까지 연속되고 외현화되어 현실에 영향을 준다.[2] 따라서 꿈분석을 통하여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내담자들의 치료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외상적 사건을 공유한 집단이 가진 무의식을 연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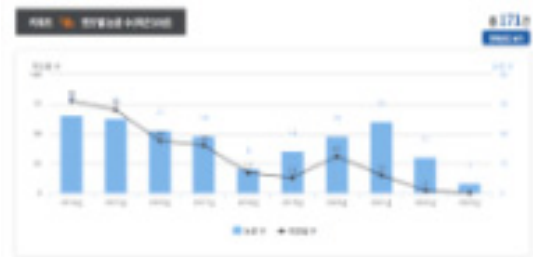
국내 선행 연구로는 외상적 사건을 공유한 집단에 대한 꿈분석 연구가 미비하지만 해외 선행 연구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학술지는 다양한 문화적,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와 상담자들이 수행한 풍부한 연구 결과를 제공한다. 이러한 해외학술지를 검토하면 꿈분석의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연구자들의 새로운 주제, 방법론 및 연구 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학술지들을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파악하고, 문화 간 관점을 탐구하고, 연구의 방법론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의 5년간 꿈분석 관련 해외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꿈분석과 관련된 앞으로의 국내 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1.1. 연구 문제

최근 10년의 국내 연구 통계를 인용해 볼 때, 꿈분석은 2014년 26건의 연구를 시작으로 2018년 8건의 연구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21년 24건의 연구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꿈분석 연구 통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꿈분석 국내 연구 통계

본 연구는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의 5년간 꿈

분석 관련 해외학술지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꿈분석과 관련된 앞으로의 국내 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꿈분석 관련 해외학술지의 연도별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꿈분석 관련 해외학술지의 연구주제별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꿈분석 관련 해외학술지의 연구방법의 동향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의 꿈분석

정신분석이론에서의 꿈분석은 꿈이 무의식적 욕망, 갈등, 소망의 표현이라고 가정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다음의 주요 개념을 두고 있다.[3]

무의식은 꿈분석에서 중요한 개념이며, 프로이트는 의식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억압된 생각, 욕망, 기억을 담고 있는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꿈이 제공한다고 하였다. 꿈은 이러한 무의식적 내용을 상징적이고 위장된 형태로 표면화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4]

꿈의 해석에 대하여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1899)에서 꿈은 해석될 수 있으며, 꿈에는 명시적 내용과 잠재적 내용이 모두 있다고 주장했다. 꿈의 진정한 의미는 무의식적인 소망과 갈등을 반영하는 잠재적 내용에 있다고 정의한다.

소원 성취는 꿈의 작용 메커니즘이며 꿈을 통해 개인이 깨어 있는 삶에서 억압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무의식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프로이트는 꿈의 내용은 왜곡과 검열의 과정을 거쳐 보다 수용하기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욕망은 꿈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꿈작업은 무의식적인 감정과 생각, 욕구를 응축과 변위를 통해 본래 의미를 알지 못하게 외현몽으로 변형시키는 활동이다. 프로이트는 꿈의 본질은 꿈작업에 있다고 강조하였다.[5]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어린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소유욕을 보이거나 아버지를 경쟁상대로 보고 콤플렉스를 느끼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꿈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관련된 무의식적 갈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꿈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며 꿈꾼 사람의 무의식적 역동성과 어린 시절 경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6]

자유 연상은 꿈분석의 기법으로서 프로이트는 꿈을 분석하려면 꿈꾸는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유 연상 기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유 연상은 생각, 감정, 기억을 검열 없이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마음이 자유롭게 방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무의식적인 자료가 나타나고 연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꿈의 내용을 쉽게 해석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꿈분석은 꿈의 상징적 성격과 무의식적 욕망 및 갈등과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 꿈의 이미지와 사건의 표면 너머를 파고들어 그 안에 내재된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무의식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갈등을 해결하며 심리적 치유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2 융의 분석심리학에서의 꿈분석

분석심리학의 꿈분석은 꿈과 그 심리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원형, 상징, 개인무의식과 집단무의식의 탐구를 통한 개인의 통합을 강조한다. 이는 꿈을 정신의 의미 있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개인에게 무의식의 깊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개인적 성장을 촉진하고, 개별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한다. 다음은 분석심리학의 꿈분석 주요 개념이다.[7]

집단무의식은 공유되고 유전되며 보편적인 인간 경험과 원형적 이미지의 저장고의 개념이다. 융은 꿈이 이 집단 무의식을 활용하고 그 상징적 패턴과 주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인간 정신의 집단적 측면을 표현한다고 말한다.[8]

원형은 꿈분석의 중요한 개념이며 융은 집단 무의식에는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이미지와 상징인 원형이 포함되어 있고 그림자, 아니마·아니무스, 페

르소나로 나타나는 원형이 꿈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꿈은 이러한 원형적 요소가 나타나고 이를 인식하고 분석하고 체험함으로써 무의식의 의식화로 나아간다고 주장하였다.[9]

개성화는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를 반영하여 통합된 개인이 되는 평생의 과정을 의미한다. 꿈은 개별화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로 간주된다. 꿈은 자아의 무의식적 측면, 개인적 성장, 정신 내 상충하는 요소의 통합에 대한 기회를 준다[10].

상징은 문화적, 신화적, 역사적 참조를 통해 꿈에서 상징과 이미지의 여러 가지 가능한 의미를 탐구하는 확충의 방법을 통해 분석된다.

보상적 기능은 꿈이 사람의 균형 잡히지 못한 의식적 태도에 평형을 잡아주는 것이다. 융은 기본적으로 의식의 태도를 보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3. 연구방법

3.1 분석대상 자료 수집 및 선정

꿈분석 연구에서 심리 과학 분야의 동향 연구는 희소하였고, 그중 꿈분석에 대한 국내 선행 동향 연구로는 1건이 존재하였다. 이준호(2019)는 모던정신분석의 꿈 이론과 2000년대 이후의 정신분석적 꿈 연구 동향 연구를 통해 꿈 연구 이론들의 통합, 신경과학과의 융합, 비온의 꿈 연구 등의 흐름을 분석하였다.[11]

해외 선행연구로 Paras Majumdar(2020)는 Comparison of Freudian & Jungian View on Dream Analysis를 통해 프로이트와 융의 꿈분석을 비교하고 통합에 대해 분석하였고[12], Lei Zhang(2020)은 Gender Differences in the Frequency of Aggression in Dreams: A Meta-Analysis를 통해 성별 간 차이를 꿈속에서의 공격성 빈도수를 연구하고 이를 메타분석을 통해 비교하고 분석하였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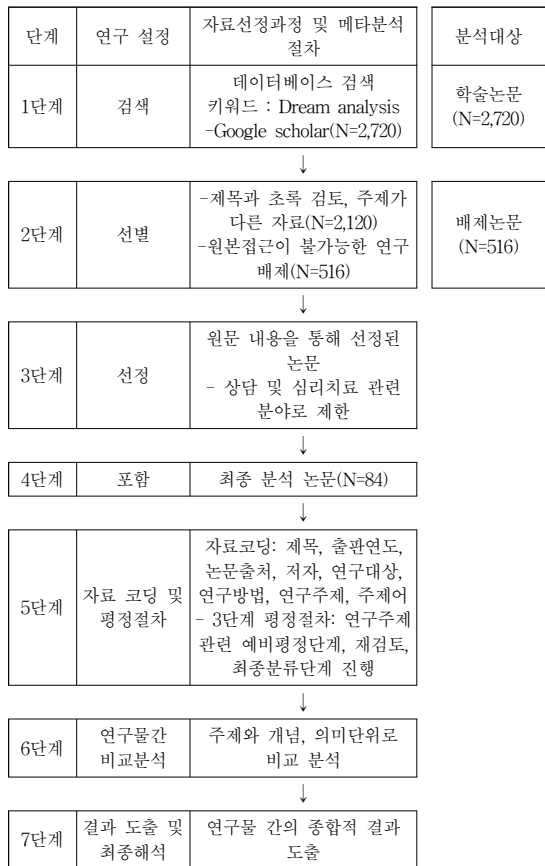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자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수집하였다.

첫째, Google scholar의 DB를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해외에서 발표된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검색하였다.

둘째, 'Dream analysis'를 주제로 하여서 검색한 원문 보기가 가능하고 주제가 있는 논문들로 선정하였다.

셋째, 수집 과정에서 연구목적에 맞지 않거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제외하고 2차적으로 선별하는 작업을 통해 총 79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선정 과정(PRISMA flowchart)은 [그림 2]와 같다.[14]



[그림 2] 분석대상 선정 과정(PRISMA flowchart)

3.2 연구동향 분석절차 및 방법

연구대상 논문들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의 분석 준거틀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주들로 수정하였다. 일반적인 특성, 연구의 특성, 연구의 방법을 분류 기준에 맞게 빈도를 조사

하였다.

분류범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위하여 지도 교수 1인과 연구자 1인의 감수를 받았으며, 분류범주 및 세부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분류범주 및 세부내용

분류범주	세부내용
일반적 특성	학술지 게재 연도
	학술지 주제별 분류
연구특성	주 사용이론
	주요 연구 주제
연구방법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 연구, 메타분석

3.3 분류기준

3.3.1 주 사용이론 분류기준

분석대상 논문들에서 주 사용이론별로 구분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과 이준호(2020)이 제시한 분석틀을 참고하여 융, 프로이트, 신경과학 등으로 분류하였다.

3.3.2 주요 연구주제 분류

분석대상 논문들에서 주 사용이론별로 구분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과 이준호(2020)이 제시한 분석틀을 참고하여 <표 2>와 같이 비교정신분석, 꿈의

<표 2> 연구주제 분류

연구주제	설명
꿈의 기능	보상, 예지, 회복
집단의 꿈	집단 무의식
비교정신분석	학과 및 학자간 견해 차이, 통합
신경과학	REM수면, 꿈과 수면
꿈작업	잠재물, 발현물
트라우마	외상, 외상 후의 재현물
이론적발달사	꿈분석에 대한 이론들의 변천사
최초의 꿈	원형의 꿈
기호학	융의 상징
프로이트 꿈분석	프로이트 꿈의 해석
외현물	일상을 침습하는 꿈
질문지 연구	질문지 개정 연구
꿈 코딩	LIWC
기타	

기능, 신경과학, 트라우마, 이론적 발달사, 집단의 꿈, 기타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3.3.3 연구방법 분류기준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 연구, 메타분석으로 분류하였다.

4. 해외학술지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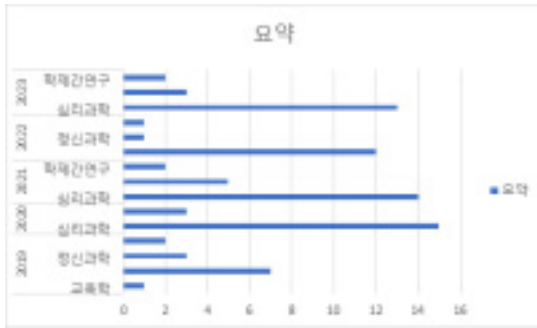
2019년을 시작으로 1년 단위의 게재 연구 수 등 일반적 특성을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3>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세부사항	N	
게재 연도	2019년	13
	2020년	18
	2021년	21
	2022년	14
	2023년	18
	계	84
주제별 분류	심리과학	61
	정신과학	15
	학제간 연구	7
	교육학	1
계	84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게재된 연구 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추세이고,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관련 연구가 각 국가에서 활발했다.

연구가 게재된 학술지는 심리과학저널이 52편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과학저널 14편, 사회과학저널 7편, 학제간 연구가 6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4.2 연구특성

꿈분석 연구들에서 주요하게 사용한 이론들을 분석한 결과 아홉 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한 연구에서 하나 이상의 이론을 사용한 경우 각각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주 사용이론별 연구동향

세부사항		N
주 사용이론	융	32
	프로이트	26
	신경과학	26
	기타	6
	비온	3
	독자적	3
	다원적관점	2
	메타분석	1
	기호학	1
	계	100



[그림 4] 주 사용이론별 연구동향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던 3개의 이론으로는 융의 꿈 이론, 프로이트의 꿈 이론, 신경과학의 꿈 이론이 있었다. 주목할 점은 다수의 이론들을 비교·대조하며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논문들이 많았다. 특히 신경과학의 이론과 프로이트, 신경과학의 이론과 융이 결합된 논문이 많았다.

연구 대상인 84편의 논문들은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었다. 주요 연구 주제는 명확하게 나누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었으나, 이들을 1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주요 연구 주제별 연구동향

세부사항		N
주요 연구 주제	꿈의 기능	19
	집단의 꿈	15
	비교정신분석	12
	신경과학	8
	꿈작업	6
	기타	6
	트라우마	7
	이론적발달사	3
	최초의 꿈	2
	기호학	1
	프로이트 꿈분석	2
	외현몽	1
	질문지 연구	1
	꿈 코딩	1
	계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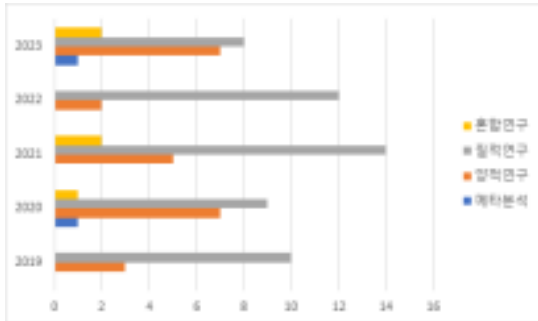
꿈의 기능 관련 연구가 19편, 집단의 꿈 관련 연구가 14편, 비교정신분석 관련 연구가 13편, 신경과학 연구 9편, 꿈작업 연구 6편, 트라우마 연구 5편, 이론적발달사 연구 3편, 최초의 꿈 연구 2편, 기호학 연구 1편, 외현몽 연구 1편, 질문지 연구 1편 순으로 나타났고, 분류하지 못한 기타 연구는 5편이었다. 이중 집단의 꿈 관련 연구와 신경 과학 연구, 트라우마 연구는 코로나19의 연구 방법으로 많이 쓰였으며, 꿈작업 연구는 상담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많았다.

4.3 연구방법

논문의 연구 방법 분석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메타분석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연구 대상인 84편의 논문들의 연구방법 분석결과 질적연구를 이용한 연구가 53편, 양적연구 24편, 혼합연구 5편, 메타분석 2편순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코로나19시기에 양적연구가 증가하였다. 특히 양적연구에 있어서 국가별 집단의 꿈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고, 동양과 서양의 차이, 이민자의 꿈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던 것이 주목할 부분이다.

<표 6> 연구방법 연구동향

세부사항		N
연구방법	질적연구	53
	양적연구	24
	혼합연구	5
	메타분석	2
	계	84



[그림 5] 연구방법 연구동향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의 5년간 꿈분석 관련 해외학술지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연도별 학술지 논문 게재 현황, 학술지 주제별 분류, 주 사용이론, 주요 연구주제, 연구방법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등에 대한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꿈분석 관련 해외학술지의 연도별 연구동향

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10편 이상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시기 관련 연구가 각 국가에서 활발했다는 것은 트라우마에 대한 꿈분석으로의 접근이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둘째, 꿈분석 관련 해외학술지의 연구주제별 연구동향은 꿈의 기능 관련 연구가 19편, 집단의 꿈 관련 연구가 14편, 비교정신분석 관련 연구가 13편, 신경과학 연구 9편, 꿈작업 연구 6편, 트라우마 연구 5편, 이론적발달사 연구 3편, 최초의 꿈 연구 2편, 기호학 연구 1편, 외현몽 연구 1편, 질문지 연구 1편순으로 나타났고, 분류하지 못한 기타 연구는 5편이었다.

꿈의 기능 관련 연구는 꿈분석을 통해 자존감 향상과 근로자 의욕 고취, 환상통 등 여러 학술 분야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집단의 꿈 관련 연구는 코로나19 관련과 국민의 정체성 관련 연구에 접목되었으며, 신경과학 연구는 대다수가 코로나19 관련 연구였다. 꿈분석을 통해 무의식을 해석하고 다양한 분야로 접목하는 경향은 꿈분석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꿈분석 관련 해외학술지 연구방법의 동향은 질적연구를 이용한 연구가 53편, 양적연구 24편, 혼합연구 5편, 메타분석 2편순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양적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양적연구로 국가별 집단의 꿈, 동양과 서양의 차이, 이민자의 꿈에 대한 연구들을 주로 다뤘던 것을 볼 때, 모집단을 크게 잡은 꿈분석 연구가 사회, 정책적인 제언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해외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연구 대상을 해외학술지로 제한을 두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 동향을 함께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면 꿈분석을 활용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해외연구에서도 꿈분석 분야 메타분석 연구는 희소하였다. 메타분석 연구가 더 활발해지면 꿈분석의 임상적 가치를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해외 양적연구에 있어 모집단을 광의적으로 선정한 연구들이 많았다. Dreambank 등의 클라우드 기반 대상 설정 방법들을 사용하여 모집단을 광의적으로 선정한 연구 결과들은 국가별 집단의 꿈, 동양과 서양의 차이, 이민자의 꿈에 대한 연구 등 꿈 분석 연구가 사회, 정책적인 제언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모집단을 광의적으로 선정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1] 구무서(2023). 우울증, 첫 '한해 100만명'...5년간 불안장애 더하면 총 906만명. 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26083?sid=102>
- [2] Sacchetti, S., Parlato, D., Tartaro, G., Sebastianelli, A., Ramonda, G., & Maggiolini, A.(2023). Pandemic Dreams: A Qualitative Analysis of Dream Imager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Dreaming*. Advance online publication.
- [3] S. Freud(2020). 꿈의 해석. 열린 책들
- [4] Songyang Zhang(2020). Psychoanalysis: The Influence of Freud's Theory in Personality Psychology. *Advances in Social Science, Education and Humanities Research*, volume 433.
- [5] Christian Roesler & Daniel Widmer(2023). Amalia Revisited – A Reanalysis of Amalia's Dreams with the Method Structural Dream Analysis. *Brain Sciences* 13:5, pages 796.
- [6] 김해립(2018). [마스터 인문학] 잠든 자의 혁명 프로젝트 <꿈의 해석>. *나침반* 36.5도 57, 58-63.
- [7] 이부영(2011). 분석심리학 : C. G. 융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73-126.
- [8] 김성민(2012). 콤플렉스와 정신병리 - C. G. 융의 이론을 중심으로 -. *신학과 실천*, 32, 429-455.
- [9] 김은주, 이규민(2020). 청년기의 기독교 변형화교육에 관한 연구: 융의 무의식 대면과 로더의 변형이론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 논총*, 63, 121-150.
- [10] 장은수(2016). 청년기의 개성화를 촉진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남대학교 학제신학대학원*.
- [12] 이준호(2019). 모던정신분석의 꿈 이론과 2000년대 이후의 정신분석적 꿈 연구 동향. *한국라깡과현대정신분석학회 학술발표대회 프로시딩*.
- [12] Paras Majumdar(2020). Comparison of Freudian & Jungian View on Dream Analysis. *Pramana Research Journal*.
- [13] Lei Zhang, Nanfang Pan, Taolin Chen, Song Wang, and Jianling Gu(2020). Gender Differences in the Frequency of Aggression in Dreams: A Meta-Analysis. *Dreaming*.(psycnet.apa.org)
- [14] Javadi N, Rostamnia L, Raznahan R, Ghanbari V (2021). A Systematic Review on Educational Intervention Studies. *Triage Training in Iran from 2010 to 2020*.

공 현 민 (Kong, Hyun-Min)



- 한국의국어대학교 경제학 학사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 석사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 박사과정
- 관심분야: 상담심리, 아동·청소년상담, 성인상담, 가해자치료 등
- E-Mail: calllove114@naver.com

신 동 열 (Shin, Dong-Yeol)



- 건신대학원 대학교 철학박사(상담심리학) 졸업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 교수
- 관심분야: 상담심리, 아동·청소년 상담, 가족상담, 정신역동꿈분석 등
- E-Mail: counme3@naver.com